

## 고객 · 기술 · 인재

- 우리의 미래입니다.



- "KTL은 제조기술의 발전과 신제품의 개발에 맞추어 새로운 규격과 시험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산업기술시험원(KTL, Korea Testing Laboratory)  
홍종희 원장

"KTL은 시험평가기술 지원을 통한 산업기술의 향상을 위해 설립된 산업자원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입니다.

1966년 한국정밀기기센터(FIC)로 출범한 이래 지난 40년간을 줄곧 KTL은 제품의 시험평가, 품질인증과 산업설비에 대한

기술감리, 계측기 교정, 환경오염 방지, 그리고 의료기기 시험 등 산업현장에 즉시 필요한 각종 기술지원 업무에 주력하며 종합 시험인증기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주요 선진 외국 인증기관과 시험 및 인증분야 협약을 계속 확대시킴으로써 수출기업의 해외인증획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IECEE-CB의 국가인증기관(NCB) 및 인증시험소(CBTL)로 활동하는 등 국제기준에 따른 시험검사와 인증 및 시험소 인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TL은 제조기술의 발전과 신제품의 개발에 발맞추어 새로운 규격과 시험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이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적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 개정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인증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제품, 제조와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2006년부터는 2회 이상 연속하여 정기검사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하거나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정기검사를 면제하여, 제조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우리 기관의 정기검사 결과 1,153업체 중 적합 1,086건(94%), 부적합 67건(6%)이며, 적합업체 중 131업체(12%)는 개선명령을 받아 우리원의 적극적인 지도와 개선으로 안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용품안전관리 교육이 부적합 업체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원에서는 SCS 전산 시스템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완료하여 2006년부터는 사후관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서 "구성원의 자긍심 고취를 통해 강한 조직 문화를 창출하고 새롭게 변모하는 우리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기관으로서의 이미지와 새로운 발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홍원장의 패기에찬 일성이다.

국내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외국의 비관세 기술장벽을 해결하기 위하여, KTL은 30여개국 45개 시험인증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한 각종 안전 및 품질인증, 공장심사, 정보, 기술교육 등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국제인증제도인 IECEE CB 및 IECQ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의 공동인증제도를 목표로 2000년에 출범한 아시아 인증기관협의회(ANF: Asia Network Forum)의 한국을 대표하는 인증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으로서 소비자의 안전 및 전기용품안전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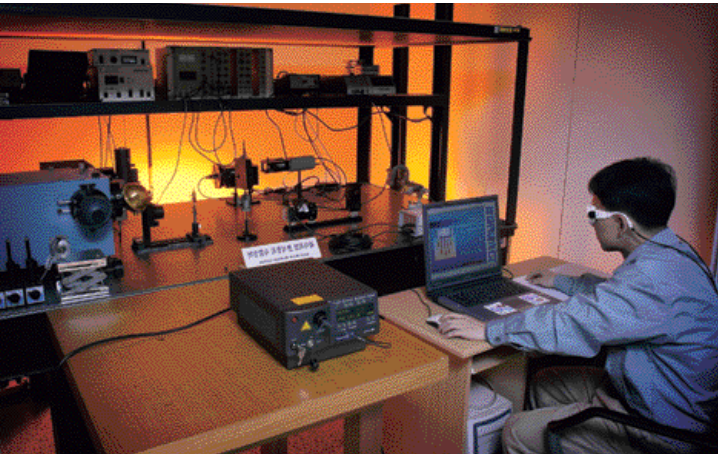
"전기전자통신제품의 안전성과 전자파 평가분야 및 전기전자부품의 신뢰성 평가분야에 대하여 국내 최고의 시험인력과 시험설비를 갖추어 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전기기기인증기관(CB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EK마크), 정통부형식승인(MIC마크), 에너지효율제도, 조달청납품시험 등의 많은 국내외 공인시험소로 지정받아 공공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기업들이 원활하게 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학박사이면서 기술고시 출신답게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홍원장은 자신있게 말을 이어갔다.

"기계 및 소재분야는 국가 기간산업 및 성장동력 산업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각종 산업에 필요한 요소부품, 핵심소재, 제품 및 시스템의 시험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의 일원으로서 부품소재연구개발과 승강설비, 에너지설비, 공공시설 및 산업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L은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측정과 분석은 환경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환경보전을 이루기 위한 절대적인 사업이다. 정확한 측정과 분석을 위하여 고정밀 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환경설비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환경 측정기기의 성능시험, 정도검사 업무 그리고 청정기술 분야 컨설팅 등 환경기술에 대한 종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의료기기본부는 국내 최고, 최신의 설비와 25년간의 의료기기 시험평가 기술을 보유한 국제 수준의 의료기기 종합시험검사기관으로 자리잡고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의료기기 전품목 시험검사기관, 의료기기 GMP심사기관,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의료기기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산업자원부의 국책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IECEE-CBTL로 지정받아 의료기기 CB-Test Report를 발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으로 항상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66년 정밀기기 수리교정 업무를 KTL 전신인 한국정밀기기센터(FIC)에서 최초로 시작하였으며, 1978년 국내 최초의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부와 고객 여러분의 성원 속에 국가교정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4월에는 국제기준에 의해 공인받은 KOLAS국가교정기관으로 인정되었으며, 국내 대표 국가교정 · 시험기관으로서 국가측정표준의 효율적인 보급과 산업측정의 정밀성과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흥원장의 거침없는 설명은 이어진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산업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부의 특정 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환경부의 환경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청

의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과 한국전력공사의 연구개발사업 등 공공기관의 연구과제를 기업 및 대학과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KTL은 2003년 5월 6일부터 경기도 안산의 경기도 테크노파크내에 안산사업본부를 조직하여 반월, 시화, 남동공단 등에 소재하고 있는 12,000여 기업을 위하여 품질인증, 표준계측, 환경기술, 기계소재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까지 경기테크노파크 동편의 33,000㎡ (10,000평) 부지에 전자파시험연구동, 표준시험연구동, 역학시험연구동, 종합시험연구동 등 총 19,800㎡ (6천여평) 규모의 4개 시험연구동을 단계별로 건설할 계획이다. 안산사업본부를 『안산시험연구센터』로 확장해서 발전시켜 동북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새로운 서해안시대를 열 계획이라는 것이다.

"전기전자, 기계소재, 측정, 환경, 의료 분야 등의 국내외 규격에 따른 시험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Global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비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KTL은 국내 산업의 기술 및 품질 향상과 산업현장의 해당 업무자 능력개발을 위하여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시험교정기관의 시스템구축 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공계 미취업자에 대한 현장연수계획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교육을 통한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에도 앞장서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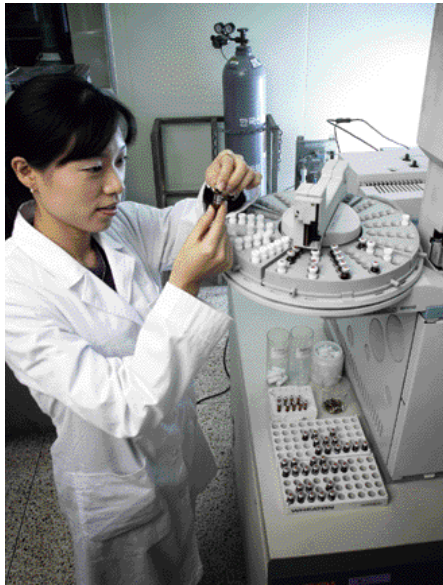
그렇다, 고도화 산업 발전에 근간이 되고 있는 정밀제품(설계) 기술, 정밀생산기술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개발된 기술을 관련업체에 보급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경쟁력을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KTL이다.

그뿐이랴, 해외 인증기관의 협정체결 및 교류를 통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인증획득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조달청과 MOU 체결(5.19)하여 조달물자의 품질대행 시험 대상물품의 연구 및 발굴, 시험항목 및 방법에 대한 자문, 품질강화를 위한 연구결과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조달청과 업무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방폭분야에서는 일본 산업안전 기술협회(TIIS)와 MOU 체결(5.27)하여 일본과 방폭전기기계 기구의 시험 및 인증분야에서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 방폭인증기관인 TIIS와 기술 협정 체결하고, 이를 통해 국내 방폭전기기계기구 제조기업들의 일본 인증획득이 용이해져 대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운대학교와 교류협력 협정 체결(6.13)하여 교육, 연구 및 학연협력 등의 분야에서 상호교류 및 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광운대학교와 교류협력 협정하고, 연구원 교류 및 공동연구, 학술회의 공동개최 및 공동연구 등의 내용으로 상호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분한 말씨이면서 또한 달변인 홍원장의 설명은 그치지 않고 물 흐르듯 계속 이어진다.

이탈리아의 IMQ, 폴란드의 PCBC, 영국의 ASTA-BEAB 등 유럽 인증기관을 방문하여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신규 MOU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해외 인증기관과의 MOU 실적을 29개국 49개 기관에서 33개국 58개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인제대학교와 MOU(8.25)를 체결하고, "교육, 연구 및 학연협력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특히 지능형 실버산업 클러스터사업과 김해소재 경남 지역특화 정밀기기센터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여기서 홍원장의 말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 간사기관

지정(9.28)되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통신 및 신호용 케이블, 전선(IEC TC 46)분야에 대한 간사기관으로 지정되어 IEC TC 46분야의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하고 검토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삼성광주전자와 MOU 체결(10.27)하여 업무교류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협약체결하고 제품 신뢰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의 공동수행과 상호 교류협력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을 약속한바 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나 진상(眞相)을 탐하는, 곧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학습형 사람, 학습형 조직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차분하면서도 결의에 찬 홍원장의 말이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나 주위사람에게 자주하는 말하는 좌우명에 대해서는 "노력하는 만큼 그 결과는 분명히 있다. 늘 최선을 다하라."

